

2025년 워크숍 탐방건축물 관련

2025.08.06. 기준

2025년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매력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 2025.9.26.-11.18
- 열린송현녹지광장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및 주변 일대



제5회 서울비엔날레는 건축물의 단순히 미학적 관점에서 바로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건축물의 외관에 주목하고, 도시건축을 보다 즐겁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의 외관이 우리의 뇌와 신체, 그리고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며, 건강과 웰빙의 관점에서 건축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건축이 지닌 감성적 힘이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도시들을 어떻게 더 즐겁고 흥미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의 장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서울비엔날레는 9월 26일(금)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개막포럼(글로벌 대화)> ‘감성 도시(Emotional City)’를 통해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개막포럼에는 전 세계 약 4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미래 도시와 건축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혁신적인 연구 발표를 비롯해 실제 사례에 기반한 강연,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 창의적인 도시 개입 사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유되며,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합니다. 또한, 서울의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공연을 통해 도시와 건축을 감성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몰입감 있는 순간도 선사합니다.

열린송헌 녹지광장에서 펼쳐질 제5회 서울비엔날레 <주제전>은 가로 90m, 높이 16m의 대형 구조물과 24점의 야외 조형물이 설치되어, 도시와 건축,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는 세계 여러 도시의 건축 외관을 소개하는 <도시전>, 서울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서울전>, AI와 관람객이 함께 만드는 인터랙티브 전시 <글로벌 스튜디오> 세 가지 전시가 여러분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됩니다. 함께 느끼고, 만들어가는 도시건축 이야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

서울은 독특합니다. 다른 많은 도시들이 가지지 못한 자신감과 창의력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변화하고 진화하는 곳입니다. 도시의 수변(水邊)을 재설계하거나 낡은 회색 구조물을 녹색 생태 공간으로 교체하는 등 크고 카리스마 넘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죠. 동시에 서울은 여전히 공격적인 산업화와 끊임없는 발전의 유산을 극복하고 더 풍요롭고 부드럽고 역동적인, 즉 더욱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건축물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통해, 평소에 전혀 대화하지 않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자신들의 도시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자신감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에게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시민들, 이 두 세계가 결합되지 않으면 도시를 더 즐겁고 매력적인,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건물에서 살아왔습니다. 비록 그들이 새로운 건물을 설계하는 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놀라운 직관과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비엔날레를 통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산은 이들을 연결시켜 큰 대화를 이끌어내고, 사회에 더 인간적인 건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란,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것이며, 조금은 감성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장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장소를 사랑해야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건물들에 대한 사랑, 즐거움, 감정에 대해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단순히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제5회 서울비엔날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를 둘러싼 건물과 우리 인간에 관한 예상치 못한 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토마스 헤더워

조직구성원

총감독	토마스 헤더워
큐레이터	안기현, 강현석, 김건호, 김자영
프로젝트 디렉터	김호민, 이지윤, 홍석규
프로그램 매니저	정재호
이벤트 프로듀서	코린 마이넷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송현동 부지(37,117㎡)는 조선시대 소나무 숲 구릉지로 경복궁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송현동 부지는 굴곡진 역사를 거쳐 해방 이후에도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0년에는 조선식산은행 사택 건설로 문화주택이 건립되어 이름조차 일본식 지명인 ‘송현장’으로 바뀌었다. 해방 이후에도 다시 40여 년간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활용되며 서울시민에게는 가깝지만 먼 서울 속 섬과 같았던 곳이다. 1997년 우리 정부에 반환돼 비로소 다시 돌아왔지만, 이후 쓰임 없이 폐허로 방치됐다.

먼저, 부지 전체를 둘러싸고 있던 벽이 4m→1.2m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울곡로, 감고당길, 종친부길에서 드넓은 녹지광장을 한 눈에 담을 수 있게 됐다. 돌담장 안으로 들어가면 광장 중앙에 서울광장 잔디(6,449㎡)보다 넓은 1만㎡의 중앙잔디광장이 펼쳐진다. 중앙잔디광장 주변으로는 코스모스, 백일홍 같은 야생화 군락지가 조성돼 마치 한적한 교외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경복궁과 북촌은 송현동 부지가 열리면 서 광장 내부로 난 지름길(보행로)로 연결된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따라 걷다보면 청와대와 광화문광장, 인사동, 북촌 골목길로 자연스레 이어지게 된다.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넓은 녹지광장에 최소한의 시설물만 배치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3년 5월~10월 ‘서울건축비엔날레’ 개최하였고, 세계적 아트페어 키아프·프리즈를 내년 이곳 송현동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간다. 2025년부터는 송현동 부지를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품은 ‘(가칭)송현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통합 공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년 1월 착공해서 2027년 ‘(가칭)이건희 기증관’과 공원을 동시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및 주변 일대 도슨트 10:00, 12:00, 15:00, 17:00, 19:00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서울시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의 잔재였던 옛 국세청 별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해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세종대로 일대 역사 문화 특화 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전시관입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도시건축 분야 전문 전시관으로, 전시관은 지상 1층, 지하 3층(연면적 2,998㎡) 규모로 지상층에 시민광장을 조성하고 지하 3개 층을 전시관으로 조성했으며, 지하층은 지하 보행로를 통해 시민청과 연결됩니다. 서울의 도시발전과정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 모두가 도시건축을 가까이하고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공간 분야의 플랫폼이 될 것이며, 인구 천만이 넘는 메트로폴리스로서 세계 우수 도시와 정책·문화 교류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또 하나의 시민 소통 공간, 문화향유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함께 이를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의 형성 과정과 배경, 역사성과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건축을 비롯한 공간환경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함께 나누고 향유할 수 있는 시민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도시, 건축, 환경 및 정책과 관련된 기획, 상설, 대관 전시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 수집 및 아카이빙, 계절, 연휴 등의 이슈와 관련된 시민 프로그램 진행 등을 합니다.

■ 프랑스대사관 (1) - 2023년 탐방



©김용관



새로운 주한 프랑스대사관 프로젝트는 첫 완공 후 약 60년이 지난 건축가 김종업의 건축적 유산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양적으로 팽창한 대사관 기능을 새롭게 담아낼 공간 프로그램을 기존 부지 내에 적절히 배치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이하며 2015년 프랑스 외무부에서 공표한 현상공모에서, 한국의 매스스터디스(조민석)와 프랑스 설계사 사티(윤태훈)가 한 팀을 이루어 당선이 되었는데, 이 설계안은 시간이 흐르며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린 파빌리온(원작 대사 집무실) 건물을 원설계에 준하여 상징적으로 복원하고, 그 밝은 노출콘크리트 구조체 뒤로 업무기능의 건축물이 진한 잿빛의 철골조로 자리잡음으로써, 스스로 대조를 이루며 배경이 되게 하는 제안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대조 가운데에도 기존 원작의 구조 모듈과 배치 방향을 새로운 건축물에도 동일하게 반영하거나, 구조체가 외벽에 노출되는 건축 언어를 신규 건축물에 공통적으로 유지/적용하고, 신규 업무동 자리에 있던 원작 직원 사무동에서 발견되는 옥상정원 및 평지붕 처마와 같은 건축 요소를 새로운 건물에도 투영하면서 이 프로젝트 안에 공존하는 역사의 맥락을 엮어내고자 했다.

신축 업무동은 지상 10층의 수직적인 라투르 (타워)동과 수평적으로 긴 지상 2층의 라주떼(방파제)동으로 구성된다. 라주떼동은 원작 직원 사무동과 같은 높이로 하여 단면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축물의 볼륨을 수평적으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영사 및 상담 프로그램이 배치되었다. 라투르는 중층규모의 타워 유형을 이루었는데, 대사관 캠퍼스 내의 저층 건축물군과 병풍처럼 둘러싼 주변 고층 타워 사이를 매개하는 도시적 스케일의 태도를 취한다. 또한, 이를 통해 복잡한 현대 도시 서울의 맥락 가운데에서 프랑스 대사관의 존재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프랑스대사관 (2) - 2023년 탐방

완공 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김중업 파빌리온”으로 명명한 원작 대사 집무실 건물은 다목적 문화 교류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전면 철거 후 재현된 파빌리온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일부 원설계 도면과 사진을 활용하여 구축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외장 PC패널을 잘 보관한 후 동일한 위치에 설치했고, 평면상 네 개의 십자기둥에는 기존 대리석 판재를 일부 재활용하여 복원시켰다. 또한, 원작 완공당사에는 없던 엄격한 구조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포스트텐션공법 및 SRC구조 등 현대의 기술을 적용했고, 이를 통해 원설계의 진정성있는 복원이 가능했다.

대사관 캠퍼스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관저는 기존 상태가 보존되면서 원작 콘크리트 브릿지를 통해 파빌리온과 연결되고, 그 반대편에서 라주떼의 옥상광장과 새로운 철골 브릿지로 이어지면서 김중업 원작 설계에서 보이는 3단구성이 다시 환기된다. 이는 경사진 대지를 이동하면서 다채로운 공간과 지붕 선의 조합을 발견하는 건축적 산책의 종착지가 된다.

글 매스스터디스 사진 김용관

설계명: 주한 프랑스대사관 신축 및 리노베이션

설계기간: 2015.07 ~ 2016.09(현상설계) / 2017.01 ~ 2021.04(본설계)

공사기간: 2021.05 ~ 2023.03

유형: 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설계공모 당선)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한민국

대지면적: 9,289.3 m²

건축면적: 1,647.88 m²

연면적: 5,550.17 m²

건폐율: 17.74%

용적률: 43.02%

규모: 지상10층, 지하2층

높이: 42.83m

주차: 30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SRC조

주요마감:

내부 -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외부 - 노출콘크리트, UHPC 패널

설계: SATHY, Paris, France - 윤태훈 & 매스스터디스 - 조민석, 박기수, 강준구

현상설계팀: SATHY - Hong Quan Vu, Pavin Chanteau, Marguerite Wable, Carla

Boureaud, Alexis Gauchet & 매스스터디스 - 강준구

본설계팀: SATHY - 정민주, Hong Quan Vu, Pavin Chanteau & 매스스터디스 -

김장운, 민세원, 강민경, 변선우, 이재준, 조우성, 선진우, 김봉진

문화재 자문위원: 안창모 교수, 나창순 교수, 김상우 박사, 윤인석 교수, 신안준 교수

구조설계: 터구조(주), (주)씨엔피동양

토목설계: (주)다온지오이엔지

전기/기계설계: (주)하나기연

친환경 인증: 그린툴

조명설계: 뉴라이트

외장설계: J&S 한백(최종), VS-A Korea(기본설계 1단계)

조경설계: 조경설계 서안(주)

사인 및 그래픽: S/O Project, WERK, 디자인올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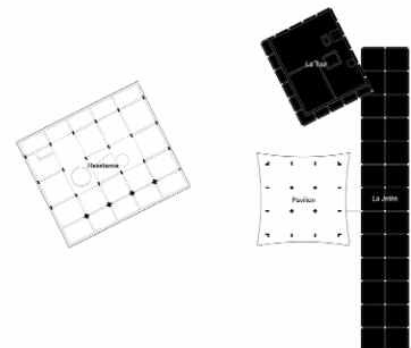
시공: 이안알앤씨

적산: 신적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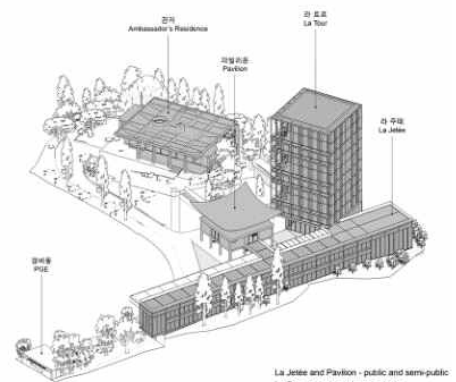
가구: (주)아모스아인스가구

사진: ©김용관

건축주: 프랑스 외무부



©SATHY+매스스터디스



©SATHY+매스스터디스

■ 송은아트센터 - 2023년



헤르조그 & 드 뫼롱이 한국에서 진행한 첫 번째 건축물인 송은문화재단 신사옥은 서울에서 가장 상업적인 지역에 자리한 비영리 전시 공간이다. 상업 및 명품 패션으로 서울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 중 한곳인 청담동 중심부에 위치한 신사옥은 더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한국 작가들과 더불어 국제 동시대 미술을 조명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자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날카로운 삼각형 형태이다. 건물의 높은 정면이 대로를 향해 있고, 정원이 있는 낮은 뒷면은 주변과 어우러지는 이 형태는 최대한의 바닥 면적, 토지 이용 규제 등의 설계 조건 안에서 가능한 조각적 형태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나왔다. 전시 공간, 사무실, 공공 장소가 혼합되어 지하와 지상에 펼쳐지고, 대중이 동시대 미술에 접촉할 수 있는 실험적인 복합 공간이 서울에 자리하게 된다. 송은문화재단 신사옥 프로젝트 역시 지역적인 맥락과 문화 및 환경에서 많은 건축적 영감을 받으며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목판 거푸집을 사용해 질감을 표현한 콘크리트 외벽이다. 목판의 문양과 결을 통해 건축물의 부피에 촉감을 더한 표면은 ‘숨어있는 소나무’를 뜻하는 ‘송은(松隱)’에서 영감을 받았다. 8,000m² 이상의 규모로 지상 11층, 지하 5층으로 구성된 건물은 날카롭고 기하학적이며 미니멀한 일체형 구조의 건물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듯하면서도 조화롭게 디자인되었다. 또한 건물 정면에서 두 개의 긴 창문을 통해 저층의 전시 공간 외에도 고층에 위치한 사무실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헤르조그 & 드 뫼롱은 “우리가 현대미술관을 설계할 때 주목해온 것은 ‘어떻게 예술과 사람들을 함께하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예술과 예술가, 대중과 컬렉터 모두에게 유효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헤르조그 & 드 뫼롱은 “우리가 현대미술관을 설계할 때 주목해온 것은 ‘어떻게 예술과 사람들을 함께하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 송은아트센터 - 2023년



예술과 예술가, 대중과 컬렉터 모두에게 유효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을 둘러싼 다양한 요구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시 생활의 새로운 요지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송은문화재단의 새로운 공간이 서울의 다양성과 문화적 지형에 소중한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글 송은문화재단 사진 정지현

설계: Jacques Herzog, Pierre de Meuron, Andreas Fries, Martin Knüsel (Partner)

국내설계: 정림건축

층수: 지상 11층 (지하 5층)

설계감리: 한미글로벌

길이(세로): 29 m

시공사: 장학건설

폭(가로): 22 m

대지면적: 1,179.1 m² (356.68평)

높이: 59 m

연면적: 8,167 m² (2,465.91평)

파사드면적: 5,158 m²

■ 헤르조그 & 드 뫼롱(Herzog & de Meuron, 이하 HdM))

세계적인 건축가 듀오 자크 헤르조그(Jacques Herzog)와 피에르 드 뫼롱(Pierre de Meuron)이 크리스틴 빈스웡어(Christine Binswanger), 아스칸 머겐탈러(Ascan Mergen-thaler), 슈테판 마바흐(Stefan Marbach), 에스더 줌스테그(Esther Zumsteg) 등의 시니어 파트너들과 함께 이끄는 건축 설계 사무소로, 1978년 스위스 바젤에 설립되었다. HdM은 국제적인 건축 전문 인력 40명 및 지원 인력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 미주, 아시아 등지에서 각종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본사는 스위스 바젤에 위치하며, 런던, 뉴욕, 홍콩, 베를린, 코펜하겐에 지사를 두고 있다. HdM은 건축 디자인에 있어 그들만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는 독보적인 건축 디자인으로 건축물이 단지 일상생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디자인과 문화의 진화에 지속적인 영감을 주는 물리적인 구현체로써 구상되길 바란다. 지역적인 맥락과 문화 및 환경에서 많은 건축적 영감을 받으며 미니멀한 요소들로 건축 디자인을 선보였고, 초기 작업들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통해 재료, 재질, 공간과 자연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2001년에는 건축가에게 최고의 영예인 미국의 프리츠키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을 수상했으며, 2007년에는 영국왕립건축가협회에서 수여하는 로열 골드 메달(RIBA Royal Gold Medal)과 일본 프리미엄 임페리얼상(Praemium Imperiale)을, 그리고 2014년 MCHAP상(Mies Crown Hall Americas Prize) 등 수많은 건축상을 수상했다.

■ 아모레퍼시픽 용산 사옥 (1) - 2023년 탐방 (2017년 준공)



사진_양해남(조경설계 서안 제공)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기업 성장의 오랜 역사를 함께 한 용산에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연결(Connectivity)’이라는 키워드 아래 새로운 본사를 통해 자연과 도시, 지역사회와 회사, 고객과 임직원 사이에 자연스러운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자 고심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 본사의 설계를 맡은 영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는 임직원들의 업무시설로서 소속감과 애사심 또한 가질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지역 주민, 나아가 지역 사회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형태를 구체화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 속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아모레퍼시픽 본사만의 특이성(Singularity)이 담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수직적으로 높거나, 여러 동의 건물이 아니라 단아하고 간결한 형태를 갖춘 단 하나의 커다란 볼륨을 가진 건축물로, 화려한 기교 없이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니면서도 편안하고 풍부한 느낌을 주는 백자 달항아리의 아름다움을 연상시킨다.

개방적이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로지아(logia) 특징을 지닌 한옥의 중정에 매료되어 이를 건물 안으로 끌어들여 ‘루프 가든’을 설계한 것도 큰 특징이다. 루프 가든은 각각 5층과 11층, 17층에 마련된 건물 속 세 개의 정원이다. 5~6개 층을 비워낸 독특한 구조 덕분에 임직원들이 건물 내 어느 곳에서 근무하더라도 자연과 가깝게 호흡하고 계절의 변화를 잘 느끼며 편안하게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다.

햇빛을 차단하는 나무 발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어 건물 외관 파사드는 유선형의 수직 알루미늄 핀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직사광선으로 인한 눈부심을 막아주고, 자연채광을 실내 공간에 골고루 확산시켜 최적의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글 사진 아모레퍼시픽그룹

■ 아모레퍼시픽 용산 사옥 (2) - 2023년 탐방 (2017년 준공)



사진_양해님(조경설계 서안 제공)

■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1953년 런던에서 태어난 건축가로, 킹스턴 예술대학과 영국 건축협회 건축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리처드 로저스, 노먼 포스터 등 영국의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1985년 데이비드 치퍼필드 건축사무소(David Chipperfield Architects)를 세운 후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문화, 주거, 상업 시설 및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지금까지 100여 건의 건축상을 수상하며 동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 중 한 명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마르바흐 암 네카 지역의 현대문학박물관 설계로 2007년 건축디자인계의 아카데미 상이라 불리는 ‘스털링 상(Stirling Prize)’을 수상했고, 2010년 영국과 독일에서의 건축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기사 작위’를 부여 받았으며, 2011년 한 해에만 영국왕립건축협회(RIBA)의 ‘로열 골드 메달(Royal Gold Medal)’, 유럽연합(EU)에서 우수한 현대 건축 작품에 수여하는 ‘미스 반 데어 로에 어워드(Mies van der Rohe Award)’를 수상했다. 현재는 런던, 베를린, 밀라노, 상하이 등 세계 경제 및 문화의 중심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뉴욕, 런던, 취리히 등 세계 곳곳에서 3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규모: 지하 7층, 지상 22층

대지면적: 14,525m²(약 4,400평) / 건축면적: 8,689.63m²(약 2,630평)

연면적: 188,902m²(약 57,150평)

설계: 데이비드 치퍼필드 건축사무소(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국내 건축가: 해안종합건축사무소

시공사: 현대건설

공사기간: 2014년 8월 ~ 2017년 10월

■ 남양성모성지 대성당 (1)



사진 마리오 보타



남양성모성지는 병인박해(1866) 때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된 순교지이다. 김 필립보와 박 마리아 부부를 비롯해 많은 천주교 신자가 순교한 이곳은 1991년 성모님께 봉헌되면서 한국 천주교회의 첫 성모성지로 선포되었다. 우리나라의 평화통일과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유를 위한 기도의 장소로 가꾸어져 오던 남양성모성지는 봉헌 20주년이었던 2011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남양 성모마리아 대성당을 건립하기로 한다. 남양성모성지의 이상각 신부는 여러 차례의 건축 기행을 통해 치유의 공간에 대해 생각했고, 마리오 보타와 페터 춤토르에게 건축을 의뢰하게 되었다.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대성당은 2011년부터 시작해 8년의 기간 동안 14차례 설계안을 발전시켜 왔고,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대성당의 형태는 골짜기에 자리 잡은 대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마리오 보타는 골짜기의 지형을 두 개의 탑을 통해 완성하고 일종의 울타리를 만들고자 했다. 두 개의 탑 사이에 50m의 긴 빛의 틈이 생기며 성당 내부로 비치는 자연광은 섬세한 빛의 결을 이루며 마리오 보타 고유의 영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마리오 보타는 “건축의 힘이 그 규모나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주변 환경, 즉 풍경과 건축 환경이 이루는 공간적 관계성에서 온다.”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남양성모성지의 이 대성당을 통해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대성당의 설계를 마리오 보타에게 의뢰한 이후 이상각 신부는 페터 춤토르를 만나 성지에 작은 기도실 설계를 의뢰했고, 페터 춤토르는 이를 수락하면서 한국에 그의 첫 프로젝트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페터 춤토르는 이곳에 작은 티 채플(TEA CHAPEL)을 제안했으며, 치유와 명상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양성모성지에는 대성당과 티 채플뿐만 아니라, 성지 순례자와 방문객, 그리고 지역을 위한 평화나눔센터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평화나눔센터는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스토키키 아키텍티(이동준)+원오원아키텍츠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성모성지의 전체 조경은 조경가 정영선(서안조경)이 참여했고, 성지의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에 건축가 승효상이 함께할 예정이다.

■ 남양성모성지 대성당 (2)



대지 면적 83,482.00㎡ (26,998.43 py)

대지 위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693-1번지 일원

지역 지구 자연녹지지역

전체면적

11,045.37㎡ (3,341.22 py)

남양성모성지대성당

4,913.80㎡ (1,486.42 py)

평화문화나눔센터

5,731.78㎡ (1,733.86 py)

변전소

172.80㎡ (52.27 py)

화장실, 초복헌소

226.99㎡ (68.66 py)

설계 MARIO BOTTA ARCHITETTI + HnSa 건축

용도 종교시설

건축면적 2,570.11㎡ (777.46 py)

연면적 4,913.80㎡ (1,486.42 py)

규모 지하 1층 / 지상2층

높이 50.5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외부마감 점토벽돌, 목재 루버(메이플)

구조설계 (주)동양구조

기계·전기 설계 (주)한일엠이씨

조명 (주)비츠로엔파트너스

조경 (주)조경설계서안

음향 (주)오에스디엔지니어링엔컨설팅

시공 (주)장학건설

설계기간 2011.11~2017.02

시공기간 2017.05~2019.10

공사비 180억

건축주 (재)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마리오 보타

1943년 스위스 티치노 출생으로 베니스 건축대학에서 수학했다. 1965년 르 코르뷔지에의 베니스 스튜디오에서 근무했으며, 1970년에 개인 스튜디오를 개설해 건축가로서 본격적인 실무 활동을 시작했다. 1983년부터 현재까지 로잔느 연방공과대학 전임교수로 있다. 베통 건축부문상(1985), CICA 건축상(1989) 및 다수의 국제 건축상을 수상했으며, '샌프란시스코 MoMA'로 AIA 건축상(1995)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 작품의 경우 '강남교보타워'로 22회 서울시 건축상(2004)과 국제 하이라이즈 어워드(2004)를, '리움미술관'으로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상(2005)과 2005년 IAA 상(2006)을 받았다.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 섬지코지'는 MIPIM 아시아 어워드(2009)를 수상했으며, '남양성모성지' 프로젝트의 경우 카톨릭에 대한 기여로 2018 Vatican awards Ratzinger Prize를 수상했다.

한만원

1956년 서울 출생으로 현재 HNSA건축 대표로 있다. 홍익대와 파리 라빌레트 건축대학을 졸업했으며, 프랑스와 스위스 Studio BOTTA 등에서 실무를 익혔다. 1996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활동하며, 서울건축학교, 경기대, 중앙대, 홍익대, 서강대 등에서 강의했다. 대표작으로 '가나아트샵' '안중성당' 이촌동 '동부센트레빌' '유연제 'M House' '왕중미술관' '한운사기념관' 파주 'MAGE 사옥' 삼성동 '479빌딩' '남양성지 Candium' 등이 있으며, 젊은건축가상, 2013 서울건축문화제, 2012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2014 파리 한국건축가전, 2015 런던 한국건축가전등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마리오 보타, 피터 쏜토르, Davide Macullo 등의 해외 건축가들과의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상각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충북 무극에서 태어나 1986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지금은 수원교구 남양성모성지 전담 신부로 있다. 지은 책으로 『성지에 사는 어느 신부의 사랑이야기』, 『아! 예수님, 좀 보태주세요』, 『오상의 비오 신부 이야기』, 『요한과 함께하는 한 주간의 렉시오비나』 등이 있고, 강론 CD로 『마리아의 손을 잡아라』가 있다. 1989년 8월부터 남양 본당 및 남양성모성지 주임 신부로 있으며, 성지 전체의 조성 계획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수원화성



조선 성곽 건축의 꽃, 수원화성은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이 장헌세자에 대한 효심으로 부친의 원침을 수원 화산으로 옮긴 후 1796년 9월 완공된 성입니다.

수원화성은 조선왕조 제22대 정조대왕이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 화산으로 천봉하고 화산 부근에 있던 읍치를 수원 팔달산 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축성되었다.

수원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진 것이며 수도 남쪽의 국방요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 수원화성 (2)



장안문(長安門)

1794년(정조 18) 창건 / 한국전쟁 때 문루 파괴 /
1975년 문루 복원

수원 화성의 북문이다. 정조는 장안長安의 의미를 ‘북쪽으로 서울의 궁궐을 바라보고, 남쪽으로 현릉(용릉)을 바라보며 만년의 편안함을 길이 알린다.’라고 풀이했다. 문 밖에 향아리 모양의 옹성甕城을 만들고 방어를 위해 좌우에 적대를 세웠다.



화서문(華西門) 보물 제403호

1796년(정조 20) 창건 / 1848년(헌종 14) 수리 /
1975년 수리

화서문은 수원 화성의 서문이다. ‘화성의 서쪽’이란 뜻이지만 서쪽에는 팔달산이 있어 서북쪽에 문을 두었다. 문밖으로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높다란 서북공심돈을 함께 세웠다.



팔달문(八達門) 보물 제402호

1794년(정조 18) 창건 / 2013년 해체 · 수리

수원 화성의 남문이다. 정조는 팔달八達의 의미를 ‘산 이름이 팔달이어서 문도 팔달이며, 사방팔방에서 배와 수레가 모인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팔달문 주변은 삼남 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이어서 화성 축성 전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잦았다. 장안문과 마찬가지로 문 밖에 향아리 모양의 옹성甕城을 만들고, 방어를 위해 좌우에 적대를 세웠다.



■ 수원시립미술관 (1)



수원시립미술관은 화성행궁과 팔달산, 팔달문 그리고 장안문 사이에 길게 늘어진 도시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통로입니다. 콘크리트 시공을 기초로 송판 무늬를 차용하여 현대와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경사 구획이며 콘크리트의 회색 바탕을 기본으로 검은색, 흰색이 교차하는 무채색 개념의 디자인을 토대로 하여 전시를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역사적 장소에 들어선 미술관이니 만큼 주변 경관이 조화를 가장 중요시하여 시민들의 쉼터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시관] 1층 제 1, 2, 5전시실, 2층 제 3, 4전시실 총 5개의 갤러리로 구성되어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수원시립미술관 (2)

▣ 전시홀



1층, 전시실 앞에 위치한 2개의 전시홀은 전시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휴게공간, 또는 간이 아트샵 등으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공간입니다.



▣ 라이브러리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미술관 라이브러리’는 아트&디자인 특화 도서관으로서 미술, 디자인, 건축 등의 전문 도서는 물론 다양한 정기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카페테리아

만남의 장소,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되는 카페테리아에서는 양질의 음료와 간단한 다과를 판매합니다.

■ 수원행궁 (1)



정조의 원대한 꿈과 효심이 느껴지는 화성행궁은 전국에 조성한 행궁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규모와 격식을 갖추었으며 경복궁만큼 아름다운 궁궐로 손꼽힙니다.

華城行宮 | 사적 제478호 | 1796년(정조 20) 창건 | 2002년 복원

화성행궁은 조선 정조 13년(1789)에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부 읍치 자리로 옮기고, 원래 수원부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겨 오면서 관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왕이 수원에 내려오면 머무는 행궁으로도 사용했다. 정조는 수원 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켜 위상을 높인 한편, 1795년 화성행궁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치르기 위하여 건물의 이름을 바꾸거나 새로 지었다. 1796년에 전체 600여 칸 규모로 완공되었다.

행궁(行宮)은 왕이 지방에 거동할 때 임시로 머물거나 지방에 별도의 궁궐을 마련하여 임시 거처하는 곳을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 위급함을 피하고 국사(國事)를 계속 하기 위해 마련된 행궁으로는 강화행궁, 의주행궁, 남한산성행궁 등이 있고, 휴양을 목적으로 설치된 행궁으로는 온양행궁이 있다. 그리고 왕이 지방의 능원(陵園)에 참배할 때 머물던 행궁으로 화성행궁이 있다.

■ 수원행궁 (2)



정조는 1790년 2월부터 1800년 1월까지 11년간 12차에 걸친 능행(陵幸)을 하였으며, 이때마다 화성행궁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조가 승하한 뒤 순조(純祖) 1년(1801) 행궁 옆에 화령전(華寧殿)을 건립하여 정조의 진영(眞影)을 봉안 하였고 그 뒤 순조, 헌종, 고종 등 역대 왕들이 이곳에서 머물렀다.



화성행궁은 조선 시대 전국에 조성한 행궁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규모와 격식을 갖추었으며, 건립 당시의 모습이 『화성성역의궤』와 『정리의궤』에 그림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화성행궁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부터 병원과 경찰서로 쓰이기 시작했고, 1920년대 병원 건물이 신축되며 대부분 파괴되었다. 현재는 낙남헌과 노래당만 본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1919년 3월 29일에는 자혜의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던 김항화를 비롯한 기생 30여 명이 경찰서(북군영)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다.



1980년대 말 지역 시민들이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원운동을 펼친 결과 1996년 복원공사가 시작되고, 2002년에 중심권역의 복원공사를 마쳤다. 2016년부터 화성행궁 우화관과 별주의 발굴조사와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 나무호텔 (1)



집을 닮은 호텔

나무호텔은 서울의 경계지역 소란한 도시 풍경 한가운데 있다. 한강 변이지만 외부 조망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될 뿐이다. 어수선한 도로 쪽 전면은 하나의 매스로 단순하게, 골목을 접한 후면은 작은 볼륨으로 세밀하게 구성했다. 그리고 도로 쪽에 주 출입구를 두지 않고 골목을 통해 진입하도록 유도했다. 복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구별된 다른 공간으로 가는 짧은 여정이다. 돌과 물, 빛과 소리를 따라 들어가면 밀도 높게 디자인된 자연의 재료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따뜻하게 오늘 머물 '집'으로 방문객을 안내한다.

자연을 담은 호텔

대형 호텔의 세련된 부대 시설과 편리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기 힘든 이유는 객실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지루함 때문이다. 좁은 복도를 지나 똑같은 표정으로 줄 서 있는 밀폐된 방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금세 집을 그리워한다. 나무호텔은 조건에 따라서 차별화된 객실로 각각 계획되었다. 면적과 구조, 가구의 배치가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방에 발코니를 두고 외부와 연결했다. 마당과 같은 이 공간에는 (건축에 의해) 추상화된 자연이 주는 편안함이 있다. 시각적으로 보호받으면서도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계절과 날씨, 햇빛과 바람을 즐길 수 있다. 나무호텔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이름과 같이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도시의 풍경으로 자랄 것이다.

글 정재현 사진 박영채



■ 나무호텔 (2)



정재현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벨빌국립건축대학에서 앙리 시리아니의 지도를 받았다. 미셸 카강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1998년 아틀리에를 열었다. 현재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다음 세대를 이끌 건축가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모노건축사사무소와 함께 삶을 짓는 건축가로 디자인 열정을 쏟고 있다.

<도천라일락집>으로 서울시건축상 대상, 한국건축가협회상(2015)을 받는 등 완성도 높은 작품들로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양평 펠친집>, <호시담>, <판교 요철동>, <오륙도가원레스토랑>, <동검리주택단지>, <두물머리주택> 등이 있다.

모노건축사사무소 monoarchitects.co.kr